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음 3월 14일) 제22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금융도시 조성 '박차'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

내년 10월 완공 예정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7일, 전주시 덕진구 신축현장에서 전북 금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을 전라북도도와 공동으로 열었다.

이번 기공식은 제2사옥의 무재해, 무사고 준공을 기원하고, 최고의 연기금 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정동영 의원,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김광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혁신도시 이전기관장, 제35사단장, 대학교 총장, 언론사, 금융계 대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및 건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제2사옥은 대지면적 2만 1029㎡, 건축면적 2만389㎡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0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나해 설계 완료 후 올해 초 조달

청을 통해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북 지역업체도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외 자산운용 정보를 모으고, 전문인력들의 창의적 역량으로 세계 시장과 경쟁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될 제2사옥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공간, 도서관 등 시설 개방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공간, 본부 사무공간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안정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기공식이 국민연금공단 발전과 전북 금융도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17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 의장과 관계자들이 시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미스 혁신기지로 개발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숲과 미스(MICE)산업 부지 양 축으로 조성한다.

〈관련기사4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사람·생태·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선 MICE산업의 혁신기지로 개발하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의 원소유자인 전북도가 공모를 통해 당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과 개발 협의의 등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동 상가연합회, 시민단체, 정의당전주시위원회 등은 "시민들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을 민간기업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 적지않은 과제가 예상된다.

반면, 개발에 찬성 입장 측도 "전주는 개발도상에 있는 도시.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전주는 외부자본이든 내부자본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시, 전북도·롯데쇼핑과 프로젝트 추진기로 협의 부지, 기업에 매각 않고 시설을 공공시설로 재생

발을 해야 도시가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면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1963 프로젝트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12만2975㎡)를 정원·예술·놀이·미식의 네 가지 테마로 전체 부지 약 3분의 2 면적으로 전주종합경기장의 흔적과 축적된 기억을 살려 재생할 계획이다.

우선, 정원의 숲은 나무숲과 꽃 숲, 예술의 숲은 공연·전시·축제를 즐기는 공간, 놀이의 숲은 생태놀이터, 미식의 숲은 유네스코 창의음식 거점 등 시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들로 탈바꿈 한다.

나머지 약 4만㎡의 면적의 MICE산업 부지에는 국제 규모의 전시장과 국제

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와 200실 이상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게 되며 여기에 서신동 롯데백화점이 이전한다.

이에 대해,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는 전주시가 소유되며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판매시설 부지는 (주)롯데쇼핑에 50년 이상 장기임대해주시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는 (주)롯데쇼핑에 대한 특혜며 전주시와 전북도, 롯데쇼핑과의 밀실거래의혹을 해명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시는 판매시설의 경우 당초 대형쇼핑몰과 백화점, 영화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에서 현재 서신동 롯데백화점과 영화관을 이전시키는 정도로 사업계획을 축소시켰다. 면적도 당초 6만4240㎡에서 절반 이하인 2만3000㎡로 줄어들었다.

(주)롯데쇼핑은 해당 토지에 백화점과 영화관을 건립하는 대신 전시컨벤션 센터를 지어 전주시에 기부채납한다. 호텔도 20년간 운영 후 전주시에 반환한다.

백화점 등 민간시설물은 육상경기장

과 야구장 등 기존 전주종합경기장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서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살려 공공시설로 재생한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주시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롯데쇼핑과의 사업시행협약 체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채워지는 콘텐츠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달라진다"며, "60여년 시민들의 기억이 축적된 종합경기장을 숲과 미스 산업의 혁신 기지로 전환해 전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시는, 이번 사업을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낼 것 △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종합경기장을 활용하여 재생할 것 △판매시설을 최소화해 지역상권을 지켜낼 것 등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을 위한 3대 대원칙으로 추진해왔다. /송효철 기자

도민과 함께 소년체전 성공 기원

전북도, 자원봉사자 등과 성공체전 기념식 개최

전북도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청 공영관에서 자원봉사자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 기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체전에 대한 불조성과 체전홍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체육회, 학생 등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체전을 기원하는 '도민 화합축제'로 개최됐다.

체전성공을 염원하는 전북어린이예술팀 단원 공연과 JTV원더키즈의 댄스공연의 사전공연, 학생들의 눈길을 잡는 화려한 LED멀티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해 공식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양대 체전 성공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요식업·숙박업체 종사자, 소방 및 체육회 종사자들의 성공기원을 위한 인터뷰 상영과 양

체육회와 자원봉사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 체전성공기원을 위한 스마일 배지 달아주기과 대형 별문 퍼포먼스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단결을 보여줬으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주제가를 부른 트윙티(Tweety)를 초대해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전북도는 이번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비전을 '양대체전의 성공개최, 미래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 문화, 예술, 관광이 융합된 '문화체전', 자발적 참여 불조성 등 지역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참여체전', 기존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저비용 고효과를 추구하는 '경제체전', 소방·의료·시설물·식품분야의 안전강화를 통한 선예방 초동대응을 통한 '안전체전', 학교체육활성화 등으로 꿈나무 성장을 도모하는 '희망체전'의 5대 전략 15개 실행과제로 설정해 성공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